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그것 공놀이를 행복하게 즐기는 친구들,

EBS Friends!

글. 이용학 EBS 편집부 음향감독

시원한 야구장에서 경기 중인 팀원들

있는 힘껏 던지고, 인정사정없이 때려 내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
그 속에서 낭만이 있는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감히 서로를 친구라 부르는 사람들.
자유로, 이 구역의 야구쟁이는 우리들이야. 여기, EBS Friends(이하 EBS 프렌즈)가 있다.

야구는 이런 운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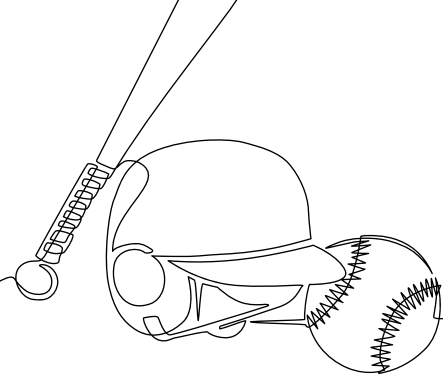
야구는 9명(지명타자가 있는 경우 10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방망이와 공과 글러브를 사용해 겨루는 구기 종목이다. 목표는 투수가 던지는 공을 타자가 방망이로 타격한 다음, 내야의 각 꼭짓점에 놓인 베이스를 모두 밟은 뒤, 마지막으로 홈 플레이트를 밟아서 득점하는 것이다. 공격팀은 9명의 타자가 순서대로 나와서 수비팀의 투수가 던지는 공을 타격해 다이아몬드의 각 베이스를 밟은 뒤 홈에 들어와야 하고 동시에 수비팀은 공격팀의 타자와 주자를 아웃시켜 실점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서로 한 회에 3아웃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9회까지 더 많은 득점을 내는 팀이 승리한다. 다만 시간제한 없이 9회까지 하는 프로와 달리, 사회인 야구는 보통 7회까지 하거나 시간제한을 두고 경기를 한다. 그리고 1~4부로 나뉘는 리그 수준에 따라 참여 선수의

자격이나 룰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또, 야구는 생각보다 복잡한 운동이다. 승부를 가리는 것은 단순히 점수뿐이지만, 그 점수를 내기 위한 상황에 수도 없이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얽히고설킨 규칙들이 많은 관계로 1아웃, 2아웃 혹은 주자가 어디에 어떻게 나가 있느냐 등에 따라 수비와 공격 모두 다양한 작전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각 선수는 지금 나의 위치에서 다음 벌어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걸 가리켜 BQ(Baseball Quotient), 즉 야구 지능이라고 표현하는데 높을수록 더 재미있고 효율적인 야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유로 나 또한 팀원들에게 항상 '다음 플레이'를 강조하는 편이다.



20대 0이었던 좋았을 걸...



줄지에 리그도 가입하게 되었다. 위대한 시작(?)은 이렇게 우연한 첫걸음이 낭만적이지 않나.

그렇게 2020년 전반기에 자유로 통일 리그에 가입하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그동안의 연습경기가 야구 맛보기였다면 리그에 참여하는 건 하나의 목표가 생기는 계기이자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하지만 평범한 신생팀의 운명이 늘 그렇듯, 기존에 있던 터줏대감들의 밥이 되어, 이기는 게임보다는 지는 게임이 훨씬 많았다. 또한 리그 부적응(?)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이런저런 불만족 때문에 매년 참여 리그를 바꾸게 되었다. 전반기를 마치고 20년 후반기에는 에이스 리그에서 활동했고, 21년부터 지금까지는 SC 고양 리그에서 뛰고 있다. 당장 내년에는 또 어떤 리그에 참여할지 모른다. 아직도 적응기를 겪는 중이니. 그에 걸맞게(?) 처음 참가한 리그를 제외하곤 모두 꼴찌를 도맡아 했다. (내가 고통받으며 팬을 하고 있는 ○○이글스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팀 내 선수들 간의 실력 차이가 의외로 고민이 되기도 했다. 감독과 코치는 이기는 경기를 위한 라인업과 열정 있는 사람들의 라인업 속에서 팀의 가치와 화합을 위해 시합마다 어떤 황금 밸런스로 팀을 다져야 할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

🏆 맵다 매워, 강팀과의 승부

얼마 전, '0:20'이라는 스코어로 상대팀에게 단단히 혼쭐이 났지만 툭툭 털고 다음 경기를 기약한 우리. 한 선수는 오히려 점수가 표시된 전광판 아래에서 자신의 등번호 20번을 내보이며 사진을 찍었다. 사실 스포츠라는 게 그렇다. 이기는 게임이 훨씬 재밌다. 하지만 늘 이길 수도 없거니와 취미로 즐기는 운동에서 '승부 결과'에만 집착한다면 오래 즐기 어렵다. 어떤 면에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미리 방어를 하는 느낌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린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우리의 이야기에 더 주목하려고 한다.

🏆 위대한 여행의 시작은 평범한 한 걸음부터

시작은 이랬다. 원래 강남 방송국이었던 우리 회사는(기존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2017년 7월, 일산(경기도 고양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지금은 이것저것 생기고 여기저기 개발이 한창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한류월드라는 허허벌판에 우리 건물만 한적하게 서 있었고 주변에 공터가 많았다. 텅 빈 땅에서 평상시 야구를 좋아하는 몇 사람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캐치볼이나 할까 해서 하다가, 그러다 몇 명 더 모아서 팀을 한 번 만들어볼까 했다고 한다.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자 싶어 유니폼도 맞추고 첫 연습경기를 치렀는데 어쩌다 그걸 이기는 바람에 자신감이 붙어서

2020. 06. 23(화) 22:10 자유로통일리그(평일 야간(전))		
 EBS Friends	VS 게임대기	 사크
3위	리그	4위
0.320	팀타율	0.294
12.41	팀방어율	7.67
1승2패	최근3경기	1승2패

2020년도 리그 경기 일정 일부

TEAM 2020. 7. 8

	Position	Name	
1	9	이영환	2
2	7	이상훈	00
3	6	신승인	35
4	8	이호원	85
5	DH	신대섭	88
6	5	이현우	6
7	3	박우환	11
8	2	강민	20
9	4	이재환	7
P		지승용	13

Name	Name
40 김민	50 이창용
33 박재식	36 이석
14 이현진	38 이현호

Name	Name
47 이종훈	
14 박성섭	

손글씨로 쓴 경기 선발 명단

그렇게 'EBS 프렌즈'가 현재까지 쌓아 온 공식 경기 기록은 통산 8승 1무 31패. (비공식인 연습경기 기록이 6승 1패라 이것까지 더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솔직히 늘 승리에 목말라 있기는 하다.) 지금도 갈 길이 멀지만, 처음을 생각

해보면 정말 암담했다. 타격도 수비도 모두 엉망이었다. 그러니 매일 질 수밖에. 그래, 차라리 지는 건 괜찮다 치자. 하지만 어이없는 실책과 흐름이 툭툭 끊기는 공격은 자꾸 맥이 풀리고 재미 붙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순수한 취미로 모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 줄 '어떤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건 썩 재미가 되었던, 비전이 되었던, 돈독한 관계가 되었던, 무슨 메리트가 되었든지 분명한 실체가 있는게 좋겠다. 이왕이면 이기는 경기가 더 재미있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야구다운 야구를 하고 나면 저도 크게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우리 색깔이 있는 야구를 즐기고 싶었던 것이다.

행복 야구를 위해 했던 노력

야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재밌으니까 한다. 이 활동이 회사 생활의 활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도 하고, 우리는 협업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송'과 가장 본질이 비슷한 취미가 야구라고 생각한다.

행복 야구는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정신승리도 하루 이틀 이지. 노력을 많이 했다. 경기가 없는 주에는 연습장을 통째로 빌려 팀원들을 모아 펑고(fungo)를 통한 수비 훈련과 개별 타격 훈련을 했다. 또 사회인 야구의 핵심인 투수를 키우



두 번째 유니폼 입고 찍은 단체 사진



우리팀 핵심 투수 재응 선배

기 위해 투수 지망생들이 개인 레슨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온 좋게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김원석 코치와 연이 닿아 팀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 레슨을 받으며 집중 교육을 받았다. 참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애정 어린 그 말들이 묘하게 듣기 좋았던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젊은 프로 선수 출신에게 레슨을 받는 일이 흔치 않은 기회인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매 경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해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게임은 많지 않다. 끝까지 해보자는 자신이 생겼고,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다. 최근에 아주 짜릿한 일도 있었다. 리그 1위 팀과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기대도 안 한 1회 초에 우리가 노아웃으로 타자 일순을 하며 공격을 마구 퍼부었던 것이다. 1회에만 무려 14점을 내며 17대 3으로 콜드게임 승을 거두게 되었고 덕분에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한편, 팀에는 EBS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속 PD, 엔지니어, 카메라 감독, 기자뿐 아니라 회사 근처 가게 사장님까지. 최근엔 지인들을 영입하기



실내 구장 연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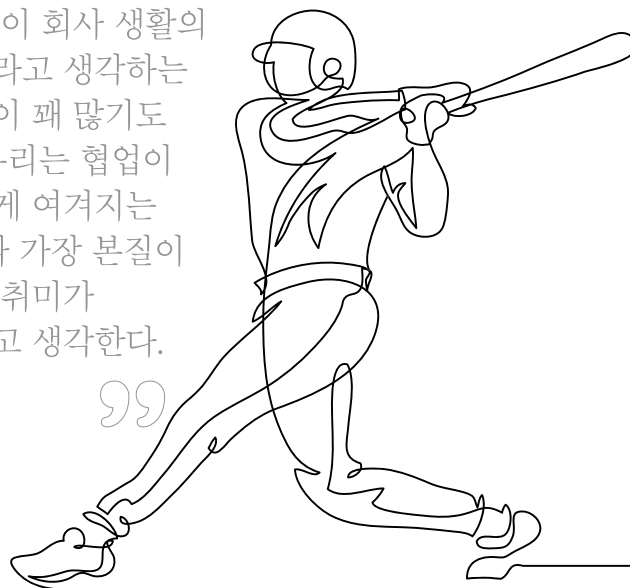


이기고 싶은 마음의 팀원들

66

야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재밌으니까 한다.
이 활동이 회사 생활의
활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도
하고. 우리는 협업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송’과 가장 본질이
비슷한 취미가
야구라고 생각한다.

99





수비 연습



점프 캐치



평고 쳐주시는 감독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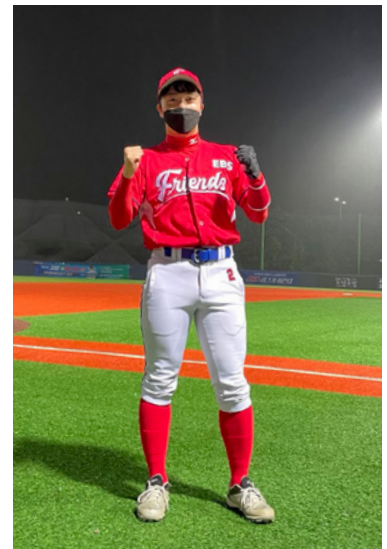
도 하며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팀명인 프렌즈 정신을 따르고 있다. 사실 회사에서만 봤다면 연차가 꽤 나서 어렵기만 하거나 평생 친해질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선배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 내 또래의 다른 직군 친구들을 만나 내가 아는 세계가 넓어진 것도 좋았다. 그리고 'EBS 프렌즈'는 유튜브 채널도 있다. 인기 있는 채널은 아니지만 방송국 사람들이라 그런지 영상 촬영에 진심이다. 다른 팀과의 시합 영상, 자체 연습 영상, 야구규정집 등을 올려 두었다. 어떻게 찍었나 궁금해 들어가 봤다가 막상 내가 나오는 영상을 보니 부끄러워서 조회수가 많지 않은 게 오히려 좋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야구

앞서 내가 주로 사회인 야구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등학교 때 테니스공과 연식공(성인들이 다루는 경식 공에 비해 물렁한 공)을 활용해 주니어 야구를 즐겼던 기억이 난다. 조그마한 얼굴에 포수 마스크까지 써가며 어른들처럼 야구를 해보겠다고 얼마나 용을 썼었는지...

그만큼 아이들의 운동 욕심 또한 대단한 편이다. 가끔 공원에 가보면 아이들과 캐치볼을 즐기는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자녀들과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로도 추천한다.

한껏 주먹 쥐고 파이팅 중인 필자



33

회사에서만 봤다면 연차가 꽤 나서
어렵기만 하거나 평생 친해질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선배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 내 또래의 다른 직군
친구들을 만나 내가 아는 세계가 넓어진
것도 좋았다.

99



추운 날 연습 후 셀카

단순하게 야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이 준비할 것은 단
하나, 글러브뿐이다. 글러브만 있어도 야구의 가장 기본인
캐치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야구를 하고 싶
다면, 글러브를 비롯해 야구화, 배트, 배팅 장갑, 헬멧, 수비
장갑, 암가드, 가방, 유니폼 등이 필요하게 된다. 전부 구입
하기 위해 드는 돈도 상당하고. 하지만 시작부터 무리할 필
요는 없고, 또 현재 있는 팀에 가입한다면 팀에서 신입을 위
해 어느 정도 따뜻한 지원이 있을 것이므로 선불리 부담을
가지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 — 나는 행복합니다, 'EBS Friends'라서

수년 전 내가 EBS에 입사할 당시만 해도 사내에 여러 동
호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많았으나, 지금은 이런저
런 이유로 장려하지 못해 대부분 스러져 갔다. 하지만 오히
려 야구라는 아이템으로 자생해 버린 기특한 모임. 제법 많
은 동료의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회사 생활의 나름 활
력소가 되어주는 우리 'EBS 프렌즈'가 앞으로 더 큰 그릇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한 모임
이길 바라며 이만 소개를 마무리해본다. 🏈



회식하며 열정을 불태우던 팀원들